

강진 성전산단에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인프라 구축

산업부 공모선정, 한국자동차연구원 주관 4년간 180억 투입
전남도, 국고 건의 활동 성과... 미래차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전라남도는 강진 성전산단 일원에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인프라 구축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자동차 분야 신규 기반 조성 공모 사업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기반 구축 과제에서 영암의 한국자동차연구원프리미엄자동차 연구센터에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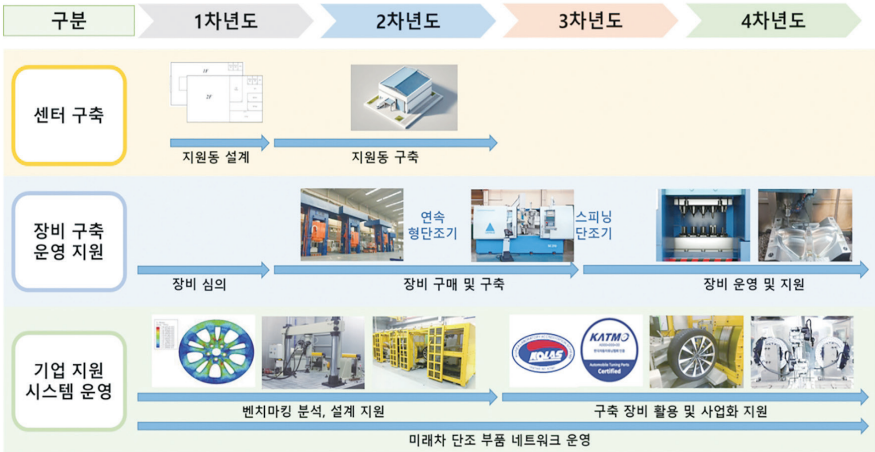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며, 2028년까지 4년 동안 180억 원(국비 77억·지방비 103억)을 투입해 강진 성전산단 일원에 연속 행단조기와 스피닝 단조기, 시제품 제작 지원동 구축, 기업 지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단조는 금속을 두들기거나 가압하는 기계적 방법이다. 평탄한 공구 사이에 소재를 놓고 위치를 바꿔 두들기며 만드는 것을 자유단조라 하고, 일정한 모양으로 요각한 금형 사이에 소재를 놓고 두들겨서 만드는 것을 행단조라 한다.

사업은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연비 향상과 탄소배출 저감을 목표로, 고효율 부품의 시제작과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 차량 수요 증가와 탄소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기조에 따라 고내구성 및 경량화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에 대한 기술 혁신과 부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연속 행단조 설비 도입을 통해 공정 자동화와 경량·고강도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조 부품사의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자동차 휠 분야에서 생산량이 주요 대비 55% 증가하고, 단조 부품 평균 단가가 68% 감소하며 연간 매출액 700억 원, 일자리 창출 160개 이상이 예상된다.



또한 단조산업 전환을 위한 미래차 부품 시제작 기반 구축을 통해 산학연 협의체의 기술 지원을 받으며 전후방 산업 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 하게 된다.

국내 기업이 수입에 의존하는 저탄소 미래차 부품을 제작할 기반이 구축돼 전남의 미래차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강진군과 지속해서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국고건의 활동을 펼치고, 강진군은 성전산단 부지를 제공하



전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접수 융자금·판로지원·교육 등 혜택으로 강소기업 육성

전라남도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통해 2025년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을 받는다 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는 1차(농산물 생산)산업 외에 2차(농산물 가공), 3차(체험·교육)산업을 융·복합해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사업자 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심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인증한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최근 2년 평균 농가소득 4천600만 원 이상, 국산 원료를 주원료(국내 생산량 50% 이상)로 사용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농촌융복합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사업 참여 우대 자격과 ▲농업인 교육 ▲현장교정 ▲판로지원 등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여러 분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국산 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을 갖춰 오는 1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www.전남6차산업.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미 농식품유통과장은 “인증제도는 농업경영체가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는 제도로 경영체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시가 내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48억원을 투입해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재난안전산업 R&D(연구개발) 확대, AI(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재난안전제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한다.

광주시는 지역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5개년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 7일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광주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지역 재난안전기업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안전부의 ‘제1차 재난안전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연계해 마련한 것으로, 광주시는 앞으로 5년간(2026년~2030년) 총 사업비 148억원을 투입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9대 주요 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시청 총무실에서 ‘광주시 재난안전산업기반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열어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먼저 광주지역 재난안전기업 180곳을

광주시, 5년간 148억 투입 재난안전산업 육성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토대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대상으로 재난안전산업기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기준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은 47.2%인 85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12곳(6.7%)은 1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안전기업의 총매출액 중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한 매출액은 10억원 이하 기업이 142곳으로 87.1%에 달했다. 이 중 1억원 이하가 85곳(47.2%)으로 집계됐다. 매출 1억원 이하 영세기업이 절반에 달해 초기 성장 지원책 마련과 함께 전문기업 육성, 시장 진출 확장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경영 및 기술분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 초기 투자비 부담, 시장 정보 부족, 원자재가격 상승, 판로 개척 어려움, 기술 경쟁력 부족 등이 꼽혔다. 전문인력 확충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성상 등이다. 9대 주요 과제로는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재난안전산업센터 운영 ▲AI·ICT 기반 재난안전 제품 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재난안전산업 R&D 지원 확대 ▲시험·평가·인증 지원체계 구축 ▲재난안전기술 상용화 및 판로개척 ▲재난안전산업 ESG경영 기업 지원 ▲재난안전산업 진흥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광주시는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3대 추진전략과 9대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재난안전산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 강점인 AI·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시장 진출을 지원해 중소기업 중심 구조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산업을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난대응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지속가능한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임채일 기자

전라남도는 노후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6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오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 퇴비 생산시설을 현대화해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 퇴비 품질을 높임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전남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3년 이상 공급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16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개소당 지원 한도는 5억 원이며, 40% 보조와 30% 융자, 30% 자담으로, 융자 이자는 연리 2~3%다.

신청 대상은 전남지역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로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한 업체다.

발효시설, 축분처리장·후숙창고,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과 농업용 로더 등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현대화된 생산시설을 구축해 양질의 퇴비 공급으로 퇴비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는 3년간 꾸준한 근로 활동을 하면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10시간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포털(bokjiro.go.kr)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개별 통보한다.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재까지 전남 청년 3천38명이 가입, 올해 하반기 첫 만기 가입자가 나올 예정”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의 주거와 창업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에 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인 기자



자연속의 가족매를 곡성